

## 12-11-2011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90:1-17

본문: 이사야 40:3-8

### 제목: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는가?

스테판 집사는 그의 설교 가운데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광야교회 안에 있었다고 증거했다 (행 7:38). 광야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뱀과 전갈이 있는 삭막하고 두려운 지역을 말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 있었다. 그분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 하셨다. 그 음성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부르짖으라는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상당한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음성이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6,7)

이 음성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던 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영광 혼과 육으로 지어진 사람이 죄로 인하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명의 호흡)이 사람의 몸을 떠나고 살아있는 혼도 하나님을 볼 수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몸도 늙어 진토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신의 몸이 늙지 않고 젊음의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이 광야같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 하나님의 외침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라면 누구나 경청해야 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외치면서 사람의 육신이 풀처럼 시들어 늙어 죽어 이 땅에서 취한 모든 영광도 몸과 함께 모두 다 떨어져버리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을 증거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단 한 가지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생명을 주는 사람의 씨를 씹어서 죽는 씨이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길은 몸이 죽기 전에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씨를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태어나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썩지 않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씨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창 12:3) 말씀하셨으며, 그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창 15:5)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씨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 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갈 3:16) 그렇다면 썩지 않는 씨는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1:1-4)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증거했다 (요 1:5)

그렇다! 지금 이순간 말씀을 읽거나 듣는 순간에도 어둠에 거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둠이 무엇인가?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죄인임을 깨닫고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빛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썩지 않는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세상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요 16:9). 그러므로 지난 이천 년 동안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생명을 얻게 하신 그분께서는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계 19:13)

지금으로부터 약 육천 년 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창 2:7)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첫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지금 풀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공기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호흡은 사람의 몸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되어 몸은 말라죽어버릴 풀처럼 된 것이다. 말라가는 풀이 죽기 전에 물을 주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의 풀같은 몸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이천 년 전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그분께 모두 드리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온 세상을 어둠 속으로 이끌어들여 이 복음의 빛이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후 4:3,4)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받는 유일한 길에 대하여 생명의 씨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 3:5-7)

그렇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을 알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는 길이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한 대신 무덤에까지 가시고 지옥에까지 대신 가셨던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사형선고를 받고 죽었는데 그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친구처럼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셨다면 그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15:13) 반대로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 되겠는가? 오늘 진심으로 생명의 주시며 썩지 않는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겠는가? 이미 모셔드린 사람은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풀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겠는가? 예수께서 죽으시던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요 15:13,14) **아멘! 할렐루야!**

**12-11-2011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90:1-17

Main scripture: Isaiah 40:3-8

Subject: **Are you revived upon hearing the crying voice in the wilderness?**

Stephen, a deacon testified of the people of Israel in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in his sermon (Act 7:38). The wilderness is the place where no water and no food are; rather snakes and scorpion bring fear to men. At that time when Israel was wandering in the wilderness,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survive without the hands of the LORD God. There was a crying voice in the wilderness in the main passage. He asked prophet Isaiah to cry; He was the LORD God. If anyone cannot understand upon hearing the voice in the wilderness, he shall be in serious danger. The voice spoke:

**“The voice said, Cry. And he said, What shall I cry? All flesh is grass, and all the goodliness thereof is as the flower of the field: The grass withereth, the flower fadeth: because the spirit of the LORD bloweth upon it: surely the people is grass.”(Isa. 40:6, 7)**

Prophet Isaiah was asked to cry by him that made man in the sixth day after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as well as all things therein. This is the crying of God unto all men, because the breath of God (the breath of life) departed out of their body because of their sins even though they were made perfectly with perfect spirit, and soul and body so that their soul may not see God, and their body are getting old to return to the dust of ground.

Is there anyone that can argue against the crying voice of God? If anyone could insist that he or she is neither going to be old, nor to lose the beauty of youth, he or she may argue, but there is no one at all in the world as the wilderness. Therefore everyone should listen to the voice of God crying in the wilderness.

Apostle Peter cried out the same word once again saying all men are destined from the birth to see their body withered as grass as they are getting old as well as their glory to fall with their body. He also testified that the hope for all men is only one that is for them to born again. He also testified of the reason of it, because all men are born of the corruptible seed unto death. Therefore, the only way to be born again is to receive the incorruptible seed that is the word of God into their body before they die. In other word, when man receives the word of life that is not corruptible, man can be born again. The seed of eternal life is the word preached as the gospel of Christ.

When God blessed Abram, he spoke unto him,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Gen. 12:3) He spoke again saying, “Look now toward heaven, and tell the stars, if thou be able to number them: and he said unto him, So shall thy seed be.”(Gen. 15:5)** And the Holy Ghost spoke through Apostle Paul of the seed incorruptible: **“Now to Abraham and his seed were the promises made. He saith not, And to seeds, as of many; but as of one, And to thy seed, which is Christ.”(Gal. 3:16)** Then the incorruptible seed is Jesus Christ who was in the beginning.

Apostle John also testified of Jesus Christ that is the only seed that gives eternal life: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 thing made that was made. In him was**

**the darkness comprehended it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John 1:1-4) unfortunately, he testified, “And the light shineth in darkness; and not” (John 1:5)**

Yea! Even in this moment, no one can understand this message, if anyone abides in the darkness. Then, what is the darkness? The light of God cannot reach where sin exists. Only one condition for the light of God to reach into the darkness is to understand oneself as a sinner from the birth, and to receive Jesus Christ that is the seed of life. Therefore the Holy Ghost is still reproving the world of sin because they not believe in Jesus Christ (John 16:9) Sooner or later; he that has given eternal lif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ill come back to the earth finally so that they may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He shall be called as “the Word of God: when he comes.

Six thousand years ago, when God made men, testified by the word of God: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Gen. 2:7)**

In other word, Adam, the first man received life of God. It was the life of God that is different from breath of air that is in the body of man as grass. But unfortunately the breath of God was taken away because of sin; and his body became a withering grass. As grass can be revived with watering when it is withering, man also can receive the life eternal if he receives the breath of life before he dies. Only one condition is that he should receive the Lord Jesus Christ as his own Savior that died for him shedding his blood t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giving all his sins unto him. But one power is trying to keep men from believing this truth so that it leads men into the darkness, so that the light of the Gospel may not shine into the heart of men.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power:

**“But if our gospel be hid, it is hid to them that are lost: In whom the god of this world hath blinded the minds of them which believe not, lest the light of the glorious gospel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should shine unto them.”(2Cor. 4:3, 4)**

Jesus that appeared as the seed of life also testified of the only way to receive the eternal life: **“Except a man is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Marvel not that I said unto thee, Ye must be born again. “(John 3:5-7)**

Yea! If man knows how God created man, there is no question at all. In other word, the only way is to receive the Holy Ghost that is the breath of God. Jesus testifie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John 14:6)** God already decided to give the eternal life all men, for he is love. The true love is to give life so that he died for sinners, and went down to the grave for them, and even went down into the hell. If someone was sentenced to death on behalf of me, then I don't believe in him, then how much shall he be upset because of me? Then, God the Creator died for sinners as their friend, what a great love it must be? (John 15:13). If we don't believe in him, what a great sin it must be? Today may be the day when you receive Jesus Christ that is the seed of life, if you have not done yet. If you already did, today may be the day of thanksgiving for his great love; and it may be the day of resolution to be the crying voice in the wilderness toward men that are dying as grass. Jesus spoke to his disciple before he died on the cross: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Ye are my friends, if ye do whatsoever I command you. “(John 15:13, 14) Amen! Hallelujah!**